

아름다운 익산 농촌으로 떠나자!

익산시, 종합 농촌관광 지원 본격 추진... 체험·숙박비 지원·크리에이터 투어 여행 운영 등

익산시가 농촌의 매력을 극대화한 종합 농촌관광 지원책을 본격 추진하며, 농촌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시는 농촌관광 인증 경영체 운영, 청년 농촌활동가 네트워크 육성, 체험·숙박비와 교통비 지원, 크리에이터 여행상품 운영 등 다양한 전략으로 농촌관광 기반을 탄탄히 다지고 있다. 이는 단순 관광을 넘어 농촌 인구 유입과 지역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하는 지속 가능한 농촌 발전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2년 연속 선정된 농촌 크리에이터 지원사업은 청년 10명이 주도적으로 농촌관광 콘텐츠를 기획·운영하며 지역과의 유대감을 높이고 있다. 이를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과 농촌 정착 기반 마련이라는 선순환 구조가 뿌리를 내리고 있다.

또한, 지난해 농촌체험휴양마을(10개소)에 더해 농촌관광 인증 경영체 15개소가 추가 선정돼 체험과 숙박 인프라가 대폭 확충됐다. 여기에 감성 포토존 설치 사업까지 더해 관광객들이 더 즐겁게 머물 수 있는 농촌관광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관광객 유치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도 강화된다. 이달부터는 체험·숙박비 지원 사업이 시행돼 1인당 1일 최대 1만 원씩 지원받을 수 있다. 4인 이상 단체에는 익산 지역 최대 20만 원, 익산 이외 최대 40만 원까지 버스 임차료를 지원해 교통비 부담도 크게 낮췄다.

특히 가정의 달을 맞아 '천국보다 아름다운 농촌여행, 익산!'이라는 슬로건 아래 가족 단위 관광객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드레스와 텍시도를 대여해 추억을 남기는 의상

체험 프로그램이 대표적이다.

여기에 더해 익산시는 전북특별자치도 농촌관광 경제력 제고 공모사업에 3년 연속 선정되는 성과도 이뤘다.

2023년 다송무지개 매화마을 글램핑장 조성, 2024년 성당포구 바람개비길 야간경관 조성 등 체류형 관광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해왔다.

올해는 미륵산권역에 별을 보며 잠들 수 있는 자연 친화형 숙박시설을 조성해 색다른 농촌 체험 콘텐츠를 선보일 예정이다.

권역 바이오농정국장은 "농촌관광 활성화와 귀농·귀촌을 연계한 통합 지원으로 지역 정착까지 아우르는 지속 가능한 농촌발전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농촌관광 상품을 더욱 다변화하고, 청년과 가족 모두가 행복한 농촌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군산시, 제53회 어버이날 기념행사 개최

월명실내체육관서 어르신 700여명과 성황리에 개최

군산시 제53회 어버이날 기념행사가 8일 월명실내체육관에서 어르신 700여 명과 함께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제53회 어버이날을 기념하고 어버이 은혜에 감사하며 경로효친의 가치를 되새기기 위한 것으로 군산노인종합복지관(관장 정미순)의 주최·주관으로, 1부 '기념식'과 2부 '어르신 콘서트'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이날 1부 '기념식'에서는 타의 귀감이 되는 효행자와 노인복지 유공자에게 시장 표창 12명에게 상장이 수여되어 경로효친 정신을 계승하고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기렸다.

이어진 2부 행사인 '어르신 콘서트'에서는 실버체조강사 구민철, 미스터 트롯2 가수 김용진, 전국노래자랑 가수 구희아가 출연하여 다양하고 풍성한 공연으로 어르신들의 흥과 기쁨을 더하며 자리를 더욱 뜻깊게 만들었다.

군산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로 어버이날을 맞아 어르신들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하고 경로효친의 의미를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라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군산=이재춘 기자



익산시, 어버이날 효(孝) 문화로 물들다

제53회 어버이날 기념행사·제4회 청춘 효(孝) 콘서트 개최

제53회 어버이날을 맞아 익산시는 지역 노인복지관들이 어르신들의 헌신에 감사와 존경의 뜻을 전하고자 다양한 행사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익산시노인종합복지관(관장 김병기)은 KCN금강방송과 함께 '제53회 어버이날 기념행사 및 제4회 청춘 효(孝) 콘서트'를 이리신광교회 그레이스홀에서 열었다.

행사에는 노인일자리 참여자 등 2,000여 명의 어르신들을 비롯해 정현을 익산시장, 김경진 익산시의회 의장, 도·시의원, 권오국 신광복지재단 이사장이 참석했다.

1부에서는 효행 실천에 앞장서 지역 사회 경로효친 사상 확산에 공헌해 온 시민 9명에게 익산시장 표창이 수여됐다. 2부 문화공연에는 가수 설운도, 배일호, 오로라가 출연해 흥겨운 무대를 선보였고, 배우 전원주는 재치 있는 입담과 웃음으로 분위기를 더욱 밝게 만들었다.

같은 날 남부권·황등·북부권 노인복지관에서도 어버이날 행사를 진행하며, 복지관을 찾은 어르신 450여 명에게 케이크를 달아드리고 간식을 나눠줬다.

/익산=이재춘 기자

익산시, 교육발전특구 연계로 고교 역량 강화

익산형 다이로움 고교 역량강화 사업 추진... 17개 고교 참여·학교별 특성 살린 창의적 프로그램 운영

익산시가 교육발전특구 사업과 연계한 '익산형 다이로움 고교 역량강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8일 익산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공교육 혁신을 목표로, 학교별 특성과 교육 수요에 맞춘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올해는 교육발전특구 사업과 연계해 총 8억1,367만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이를 통해 학업 경쟁력 강화와 진로·취업 성과 제고를 적극 뒷받침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에는 △익산고 △남성고 △원광고 △이리고 △이리공고 △전

북과학교 △원광보건고 등 지역 내 17개 고등학교가 참여한다. 각 학교는 정체성과 학생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을 통해 기존 보충수업 위주의 방식에서 벗어나, 학생 맞춤형 교육 모델을 선보일 계획이다.

인문계 고교는 학업 동기 부여와 진학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특성화 고교는 전공 심화 및 진로 연계 교육을 통해 실무 능력을 배양한다.

이리공고는 신설된 배터리융합학과 교과과정과 산업체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마이스터고 전환에 대비하고 있으며, 이리고는 진로진학 캠프, 생활 기록부 관리 상담 등으로 대학 진학

준비를 체계화하고 있다.

원광보건고는 병원 현장 체험과 포트폴리오 경진대회 등 실무형 취업 연계 프로그램을 도입했으며, 남성고는 방학 기간을 활용한 학습캠프와 인문학 특강, 대학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전인적 학습 역량을 키워나가고 있다.

시 관계자는 "학생 개개인의 가능성을 키울 수 있도록 앞으로도 아낌없는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며 "공교육의 경쟁력을 높여 학부모의 부담을 덜고, 학생들이 꿈과 진로를 자유롭게 설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익산=이재춘 기자

익산시-소이미푸드, 투자협약... 식품산업 경쟁력 제고 기대

두부 생산기업 소이미푸드, 국가식품클러스터에 130억원 투자

익산시가 식품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유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익산시는 8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소이미푸드(대표 신희수)와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소이미푸드(주)는 2013년 충남 계룡시에 설립된 두부 전문 식품기업이다. 국내 시장에서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

가며, 탄탄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해외 시장 진출에도 주력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소이미푸드(주)는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2만 2,910㎡(약 6,930평)의 부지에 총 130억 원을 투자해 공장을 신축하고, 약 50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투자는 국내의 경기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도 익산시의



국가식품클러스터의 가치를 높게 평가해 이뤄진 것으로, 지역 식품산업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익산=이재춘 기자

지역 소식통

사랑의 열매, 군산시 우수 기부기업에 감사패 전달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한명규, 이하 '사랑의 열매')가 '군산 우수 기부기업 감사패 전달식'을 열어 지역의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해 온 10개 기업에 감사패를 전달했다.

지난 7일 군산시청에서 열린 전달식은 군산 지역의 취약계층을 위한 성금·물품 기부와 사회공헌활동에 꾸준히 참여해온 기업들의 공로와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고 기업의 자발적 기부문화 확산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감사패를 받은 우수기부기업은 △(유)신양해운 △(금)강피씨 △(주)서해환경 △(주)신광 △(유)이성당 △군산레저산업(주) △군산엑스마트(유)알지 △석도국제제리(주) △한화에너지(주)군산공장 △OCI주식회사 총 10곳이다. 이들 기업은 지역사회에 지속적인 나눔을 실천하여 지역공동체 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해 왔다.

한명규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역시 "앞으로도 민·관이 함께 힘을 모아 지역의 복지 향상에 힘이 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군산=이재춘 기자

군산시 수산물종합센터 신축 건어 매장 착공

군산시가 수산물종합센터의 노후 건어 매장을 철거하고 지역 경관에 적합한 매장 신축공사를 8일부터 본격 착공한다.

이번 공사는 수산물종합센터 본관동 신축 시 제외되었던 노후 건어 매장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시는 공사를 통해 건물 안전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이는 한편 지역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설계를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효율적인 점포배치 등 내외부 종합적인 개선으로 시장경쟁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시는 건어 매장이 완공되면 상인과 시민 모두가 편리하고 쾌적한 시설에서 판매와 구매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시민과 관광객에게 다양하고 품질 높은 수산물을 편하게 구매할 수 있는 지원책도 병행할 예정이다.

/군산=이재춘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전주매일 캠페인

고스란히 남아있는 백제 장인의 숨결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익산 왕궁리 유적에 있는 오층석탑이다. 1965년부터 1966년에 보수를 위한 해체와 복원을 실시하였고 이때 흙 속에 묻혀 있던 돌로 만든 기단부가 발견되었다. 1층 옥개석 상면과 기단부 심초석 상면에 마련된 사리공에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사리장엄구 '국보 제123호'를 수습하였다. 창건에 대한 문헌 기록이 없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정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의 건립 연대는 백제 시대에서 통일신라, 고려 시대 초까지 논란이 다양하다. 1989년부터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을 중심으로 본격적 발굴 조사를 실시한 결과, 백제 시대에 경영되었던 궁성이 폐기되자 궁성 터에 탑·금당·강당을 남북 일직선으로 배치한 백제의 전형적인 1탑 1금당식 사찰을 지은 것으로 밝혀졌다. 본래 목탑이었던 것이 현재의 석탑으로 바뀌었고 백제 멸망 이후에도 법등을 계속 이어 갔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1963년 1월 21일 보물 제44호로 지정되었고, 1997년 1월 1일 국보 제289호로 승격 지정되었다가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청 고시에 의해 문화재 지정번호가 폐지되어 국보로 재지정되었다.

**출처: 한국학중앙연구원-함도문화전자대전